

LG, 7일부터 마무리훈련…염경엽 감독 9일 합류 예정

등록 2022.11.06 18:53:26

7~25일 이천 2군 구장서 마무리 훈련



【인천=뉴스시스】 고범준 기자 = 2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9 KBO리그 SK 와이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 앞서 SK 염경엽 감독이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다. 2019.09.25. bjko@newsis.com

[서울=뉴스시스] 김희준 기자 = 새로운 사령탑으로 염경엽 감독을 선임한 LG 트윈스가 2023시즌 준비를 시작한다.

LG는 7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이천의 LG챔피언스파크에서 마무리 훈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정규시즌 2위를 차지해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에 직행한 LG는 3위 키움 히어로즈에 시리즈 전적 1승 3패로 밀려 탈락했다.

2002년 이후 20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을 이루지 못한 채 시즌을 마친 LG는 2021~2022년 팀을 이끌었던 류지현 전 감독

과 재계약하지 않았다.

새 사령탑을 물색하던 LG는 6일 염경엽 감독과의 계약을 발표했다. LG는 염 감독과 계약기간 3년, 총액 21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신임 감독 선임 작업을 마친 LG는 마무리 훈련을 시작으로 2023시즌 준비에 들어간다.

우승에 목마른 LG가 '우승 청부사'로 낙점한 염 감독은 9일 마무리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천 마무리 훈련 참가자 명단

▲투수(22명) = 백승현 유영찬 이상규 허준혁 조원태 함덕주 김태형 양진혁 배재준 이찬혁 이지강 성재현 채지선 김의준 김주완 오석주 김영준 송승기 성동현 임정우 임준형 김대현

▲포수(2명) = 전준호 김성진

▲내야수(7명) = 이영빈 최현준 김성협 엄태경 손호영 송대현 강민균

▲외야수(3명) = 신민재 안익훈 최민창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